



## 성균관대학교, 시스코 협업 솔루션으로 캠퍼스간 운영 효율화 및 융복합 교육 인프라 완비

### 성균관대학교

-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 및 자연과학캠퍼스(수원), 대한민국

### 비즈니스 과제

- 양 캠퍼스의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협업 인프라 필요
- 원격강의, 해외 교수진과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리모트 캠퍼스 인프라 마련

### 시스코 솔루션

- 구축형 화상회의시스템 CMS(Cisco Meeting Server) 1000
- 일체형 텔레프레즌스 MX300
- 데스크탑용 Webex DX80

### 비즈니스 성과

- 양 캠퍼스간 긴밀한 협업 가능
- 2시간 이상 이동 없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학사운영 효율화
-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융합 연구 및 선진 교육 인프라 완비

성균관대학교는 620년의 역사와 전통 이상으로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학교로 유명하다. 최근 2018 THE(Times Higher Education) 아시아 종합대학순위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사립대 1위 자리를 유지하는 쾌거를 이룬 것도 그 같은 노력의 결과다. 성균관대는 같은 평가에서 국내 전체 대학 중에서는 4위를 차지했으나 아시아에서는 13위를 기록했다. 특히, 60.4점을 기록한 연구실적(지난해 55.5점)과 69.5점을 기록한 논문 피인용도(66점) 분야에서 성과 향상이 두드러졌다. 성균관대 관계자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수년 전부터 초연결 사회에 대비한 융합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세계 유명 석학을 교수로 영입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교육과 연구의 동반성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주력해왔다”고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성균관대학교가 이번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사들간 긴밀한 협업을 독려하기 위해 기업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스코의 구축형 차세대 미팅 플랫폼인 ‘CMS(Cisco Meeting Server)’를 전격 도입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각종 통신 수단의 발달 속 국가간 경계가 무너지고 공간의 제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변화 가운데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현장이야말로 더 발빠르게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일찌감치 갖고 있었다.





**“시스코 CMS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이후 곧바로 PoC를 실시했다.  
실무자, 중간관리자, 임원진,  
최고의사결정책임자까지  
대상을 달리하며 4차례에 걸쳐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4그룹 모두  
뛰어난 영상과 음성 품질에 크게  
만족스러워했다”**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처 이상원 처장

성균관대학교는 이번 프로젝트 이전부터도 교직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일부 원격강의를 지원하기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제한적으로 도입해 활용하고 있었다. 시스코를 포함해 소니, 폴리콤과 같은 글로벌 협업 솔루션 기업들의 시스템을 두루 접한 경험치를 이미 갖고 있었기에, 우수한 영상 품질은 물론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역량을 통해 높은 신뢰를 쌓아온 시스코와 자연스럽게 새로운 솔루션 도입도 심도 깊게 논의를 진행하게 됐다.

## 현존하는 단말 대부분과의 제약없는 협업 지원 매력

성균관대학교는 시스코의 다양한 협업 솔루션이 있지만 시스코 CMS에 관심을 더욱 집중했다. 시스코 CMS는 태생부터 표준 프로토콜을 근간으로 단말기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회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확장성이 뛰어난 솔루션이다. 한 회의에서 동시에 영상 회의, 음성회의, 웹회의를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표준에 기반하지만 하면 경쟁사 영상 회의 단말기는 물론 협업 애플리케이션과도 모두 연결을 해 준다. 즉, 기존의 성균관대학교가 활용하던 화상회의 시스템과의 연계는 물론 3만 3,000명의 학생들과 3,200명의 교직원들의 보다 다양화될 미래 협업 요구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 보면 시스코가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단말기부터 서버까지 엔드투엔드 협업 솔루션 로드맵을 갖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협업 청사진과 인프라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실제로 학교는 캠퍼스 내 주요 회의실에는 디스플레이 일체형의 텔레프레즌스 장비 시스코 MX300를, 일부 교수실과 창업지원센터에는 곧바로 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필터치형의 데스크탑 장비 시스코 Webex DX80을 각각 설치했다. 이 결과 학교 임직원들은 최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캠퍼스간 이동 없이도 화상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창업동아리 학생들 역시도 창업지원센터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보다 긴밀하게 인문학적 및 자연과학적 견해와 통찰력을 교류하며 동아리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사용자 회의 패턴 기반의 합리적인 라이선스 정책도 주요

성균관대학교는 시스코 CMS가 사용자 중심의 합리적인 라이선스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점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영상회의 참여 기기 숫자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중인 미팅의 숫자에 기반하는 라이선스 정책이야말로 변화와 확장이 잦은 캠퍼스 환경에 최적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학교는 별도의 클라이언트나 화상회의 장비 없이도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 손쉽게 미팅에 참여할 수 있는 점도 수많은 학생들과 임직원, 교수들이 함께 하는 캠퍼스 환경에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라 크게 환영했다.



## 클러스터 기능으로 이중화 지원, 안정성 보장

시스코 CMS는 기능면에서도 혁신적이다. 미팅 서버로는 업계 최초로 클러스터 기능 지원으로 이중화, 콜 분산 등을 가능하도록 해 준다. 즉, 안정성을 확보해 주면서도 전체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막아준다. 또한 시스코 CMS는 하드웨어 의존성을 낮춘 결과 회의 사용이 증가할 시에는 어플라이언스 구입 없이도 전용 서버 추가만으로 손쉽게 확장이 가능한 강점을 갖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처 이상원 처장은 “신중한 고민 끝에 시스코 CMS를 도입하기로 확정된 이후 곧바로 PoC(Proof of Concept)를 실시했다. 실무자, 중간관리자, 임원진, 최고 의사결정책임자까지 대상을 달리하며 4차례에 걸쳐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4그룹 모두 뛰어난 영상과 음성 품질에 크게 만족스러워했다. 특히 실무자 그룹에서는 간편한 사용, 이중화를 통한 전체 시스템의 안정적인 성능, 편리한 유지보수, 유연한 확장성을 마음에 들어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는 현재 시스코 CMS 구축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서울과 수원 캠퍼스간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학사운영, 교수들간 협업 강화를 돕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 중이다. 또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생들간 보다 긴밀한 연구활동을 일부 지원 중이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는 보다 활발한 융합 연구 및 세계 유명 석학들의 글로벌 강의 등 선진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데까지 활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추가 정보

시스코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cisco.com](http://www.cisco.com) 을 참조하십시오.

성균관대학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skku.edu](http://www.skku.edu) 를 참조하십시오.



### 시스코 시스템즈 코리아 Cisco Systems Korea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5층 (우)06164 5F ASEM Tower, 517,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Korea  
Tel 02.3429.8000 Fax 02.3453.0851 **제품 및 구매문의** 080.808.8082 **홈페이지** [www.cisco.com/kr](http://www.cisco.com/kr)

**twitter** [twitter.com/CiscoKR](https://twitter.com/CiscoKR) **facebook** [facebook.com/ciscokorea](https://facebook.com/ciscokorea) **Blog** [www.ciscokrblog.com](http://www.ciscokrblog.com) **YouTube** Cisco Korea

©2018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